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WSJ: 미 실업률 상승이 왜 좋은 소식일까?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2월 이후 최저 수준

#### [미국 금융]

- NYT: 새로운 기업 최저세에 따른 혼란과 로비 공세
- WSJ: 부동산 침체, 미국 은행 업계에 타격
- WSJ: 건강 보험 비용 가장 큰 폭으로 ↑

#### [COVID-19]

- CNBC: 개학 시즌에 코로나 입원 환자 급증

#### [그린 에너지]

- WSJ: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 어려움↑

#### [중국 경제]

- WSJ: 중국 수출 4개월 연속 ↓
- Bloomberg: 미국과 유럽, 중국에 새로운 철강 관세 부과 계획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테슬라, 2025년까지 힐튼에 2만 개 충전기 공급
- Bloomberg: SocGen, 대만보다 한국 칩 제조업체 선호
- WSJ: 마이크로소프트,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흡수에 투자
- CNN Business: 기후변화가 테마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다
- WSJ: Meta 새 광고 캠페인, 소비자에 VR 존재 상기시키다

#### [보고서]

- 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2023.9월)
- HBR: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가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# WSJ: Why Higher Unemployment Is Good News Now

#### 미 실업률 상승이 왜 좋은 소식일까?

- 둔화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.
- 최근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면 호재가 된다. 8월 실업률이 3.8%로 상승해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이는 노동시장이 완화되었다는 신호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. 이는 또한 연준의 물가 목표 2% 관리에도 호재다.
- 3개월 평균 실업률은 올해 4월 이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. 이러한 추세는 비어있는 일자리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뒷받침한다.

## WSJ기사

**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to Lowest Level Since February****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2월 이후 최저 수준**

-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. 노동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.
-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을 기록했다. 이는 1만 3천 건 감소한 수치.
- 계속 받고 있는 전체 청구 건수는 8월 마지막 주 168만 명으로 감소했다. 이는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.
- 노동 시장은 완화되고 있다. 견고한 고용과 제한적인 해고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계속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. 이를 통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[미국 금융]****NYT: New Corporate Minimum Tax Ushers In Confusion and a Lobbying Blitz****새로운 기업 최저세에 따른 혼란과 로비 공세**

-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 최저세가 산업계의 반대 로비에 직면하고 있다. 산업계는 연방 재무부에 이 법에 대한 관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.
- 공화당은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대신, 민주당 의원들의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. 이 법은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되고 2023년 과세 연도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.
- 그런데 이 법은 느슨하게 정의되어 있고 연방 재무부는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세 규칙을 지금도 준비중이다.
- 이 법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찾는 것을 방지 위해 1백40개 국가 처리한 15% 글로벌 최저세와 완전 별개의 법이다.

## NYT기사

**WSJ: Real-Estate Doom Loop Threatens America's Banks**  
**부동산 침체, 미국 은행 업계에 타격**

- 미 전역의 지역 은행들은 지난 10년동안 대도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용자와 투자를 해왔다.
-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과 투자는 은행 업계는 물론 잠재적으로는 더 넓은 경제 영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.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에 노출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.
- 은행은 대출 손실로 인해 은행이 대출을 줄임에 따라, 이는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과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위험성에 처해 있다.
- 호황기 이후에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높은 공실률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한편 당초 은행 업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건물주에게 대출을 두배 늘린 2조 2천억달러를 대출했었다. 중소은행들이 주로 대출했으며 이 같은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 하기도 했었다

WSJ기사

### WSJ: Health-Insurance Costs Are Taking Biggest Jumps in Years

건강 보험 비용 가장 큰 폭으로 ↑

- 건강 보험 비용이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,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.
- 복리후생 컨설팅 회사인 Mercer와 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2024년 고용주 보험 비용이 약 6.5% 급증할 것이다. 이 증가율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에 해당 된다.
- 의료 보험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병원의 인건비 상승과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. 이 두 가지 병은 치료 비용이 비싸다.
- 건강 보험 비용 인상은 모든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 전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월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.
- 하지만 근로자보다는 고용주들이 인상분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. 많은 부문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기 때문이다.

WSJ기사

### [COVID-19]

**CNBC: Covid hospitalizations spike with new variant as school returns, U.S. readies vaccines**

개학 시즌에 코로나 입원 환자 급증

- 개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 전역에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. 이 시기는 새 변종에 대한 백신이 약국에 도착하기 직전이다.
-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코로나 신규 입원자가 약 16% 증가해 7월 말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.
- 아칸소, 콜로라도, 인디애나, 캔자스, 미네소타, 오클라호마, 테네시, 유타, 와이오밍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신규 입원자가 30% 이상 증가했다.
- 미국은 새로운 변종인 XBB.1.5에 대한 백신 연구에 힘쓰고 있다. 빠르게 진화하는 바이러스를 따라잡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것.

CNBC기사

## [그린 에너지]

**WSJ: America's Wind-Farm Revolution Is Broken****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 어려움↑**

- 해상 풍력 발전 단지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. 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기업과 정치 모든 면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.
-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. 하지만 현재 풍력 발전 단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.
-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업체인 Ørsted는 2018년 말과 2019년에 코네티컷, 뉴욕, 뉴저지 해안에 풍력 발전소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. 하지만 이 회사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고, 경쟁사들도 미국 내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.
- Shell과 Avangrid는 매사추세츠주 해상 풍력 발전소 개발 중단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. 공급망 쪽에도 문제가 있다.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터빈 블레이드와 나셀의 약 80%를 생산하는 Siemens Gamesa와 Vestas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.
- 해상 풍력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유망한 청정 발전 기술이다. 바다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소가 육상 풍력 발전소보다 효율성이 높다.

WSJ 기사

## [중국 경제]

**WSJ: China Exports Fall for a Fourth Month as Once-Reliable Growth Engine Sputters****중국 수출 4개월 연속 ↓**

- 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글로벌 무역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.
-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감소와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높은 대출 금리가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.
- 한편 중국 수입은 8월에도 감소했다. 이는 중국의 부진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것.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다.
- 한편 중국 제조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다. 이는 잠재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.

#### WSJ 기사

### **Bloomberg: US, EU Plan New Chinese Steel Tariffs in Bid to End Trump-Era Trade Conflict**

#### **미국과 유럽, 중국에 새로운 철강 관세 부과 계획**

- 미국과 유럽 연합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철강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도입하는 상호 합의를 준비중이다. 이 법 합의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유럽과 미국간 무역갈등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번 합의 논의는 주로 시장 관행이 아닌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수출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틀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 협정은 유럽연합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1년 이래 논의를 진행중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협정의 일부로 알려졌다. 그리고 이 협정은 트럼프 당시 유럽에 대한 철강 수입 관세 부과 분쟁도 해결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.
- 한편 미국은 지난 2018년 이래 수입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유럽연합도 셰이프가드 조치하에서 각종 철강 수입품에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.

#### Bloomberg 기사

### **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

### **Bloomberg: Tesla to Supply Hilton Hotels With 20,000 EV Chargers by 2025**

#### **테슬라, 2025년까지 힐튼에 2만 개 충전기 공급**

- 힐튼호텔이 미국,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호텔에 범용 전기 자동차 충전기 2만개를 설치하기 위해 테슬라와 협력한다.

- 이러한 동향은 힐튼을 가장 큰 전기차 충전기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으로 바꾸고, 테슬라의 충전 사업 시장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힐튼 그룹 관계자는 말했다.
- 힐튼의 최고 브랜드 책임자인 Matt Schuyler에 따르면, 설치는 2025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## **Bloomberg: SocGen Prefers Korean Chipmakers Over Taiwan's as Cycle Turns**

### **SocGen, 대만보다 한국 칩 제조업체 선호**

- Societe Generale SA는 아시아 반도체 주식의 선호도를 대만보다는 한국으로 바꾸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반도체 하락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익을 얻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.
- 이 회사 관계자는 “메모리 칩 가격이 18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인 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‘대만과의 수익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’고 말했다. 바꾸어 말해 대만 기술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절반으로 거래되고 있는 한국 기술에 대한 재평가라고 할 수 있다.
- 한편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HBM3를 AI 리더인 엔비디아에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다.

Bloomberg 기사

## **WSJ: Microsoft Will Use Carbon-Absorbing Rocks to Meet Climate Goals**

### **마이크로소프트,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흡수에 투자**

-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중에 존재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석회암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에 투자하고 있다.
- 기업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간 3십1만 3천만 톤까지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Heirloom의 채권을 구매하기로 한다고 어제목요일 언급했다.
- 이번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, 역대 최대 규모의 탄소 제거 크레딧이 될 전망이다. 이것은 또한 탄소 제거가 얼마나 빠르게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.

WSJ 기사

## **CNN Business: Climate change is hurting Six Flags, SeaWorld and Disney World**

### **기후변화가 테마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다**

- Six Flags, SeaWorld, Disney의 비즈니스는 World은 날씨에 의존하며, 기후변화가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. 테마 파크들은 실내 놀이기구들을

만들고 있으며, 악천후에 대비하기 위해 티켓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.

- Macquaire 연구소의 분석가인 Paul Golding은 극한의 날씨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므로, 테마파크 산업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말했다.
- SeaWorld(SEAS)의 고객 방문율은 더 적은 손님들이 실외 수영장을 방문 하면서,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%가 감소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### WSJ: Meta's New Ad Campaign Reminds People That VR Is Already Here Meta 새 광고 캠페인, 소비자에 VR 존재 상기시키다

- 메타의 새 광고는 가상 현실을 실제처럼 묘사했다.
- 'The Impact Is Real'이라는 제목의 캠페인 영상에서는 용접공이 가상 금속으로 용접 연습을, 의사는 가상 안구로 수술 연습을, 영국 축구 선수는 VR을 사용해 그라운드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.
- 메타는 이 캠페인을 미국과 유럽에서 TV, 팟캐스트, 이메일 뉴스레터, 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 할 예정이다.
- “이를 통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”고 메타 Reality Labs 부서 총괄인 Rob Sherman이 말했다.

WSJ 기사

### [보고서]

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2023.9월) 보고서입니다.

BOKNY 원문

###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: How Global Companies Can Create a Consistent Customer Experience

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고객 경험을 창출하는가

- 겉으로 보기에는, 국제적 기업의 사업확장이 어느 때보다 쉬운 것처럼 보인다. 오늘날에 어느 기업이라도 짧은 기간에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.
- Ian Harkin이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장난감 회사인 Lottie를 설립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국제시장을 염두하고 있었다. 그 회사의 CEO인 Harkin는 스토어들을 아마존에 등록시켰고, 즉각적으로 글로벌 고객들에게 접근했다. 거의 100%에 달하는 기업의 수입이 아일랜드 밖에서 나온다. Harkin

는 “일찍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것은 우리의 제품과 브랜드가 더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”고 말한다.

- 그러나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느때보다 힘들고 어려워졌다. 과거에는 기업들은 더욱 조심스런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의 시장만 확장하는 한계를 가졌다. 그러나, 디지털 시대에서 글로벌 성장은 특성상 훨씬 지속적이고 확장적이다. 이러한 특징은 위험을 수반한다. 만약, 한 시장에서 당신의 고객들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고객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, 고객들은 당신의 판매 활동을 달리 볼 것이다. 이것은 고객들에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, 장기간에 걸쳐 당신의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.
- 이러한 이유로, 당신의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써 이미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, 이제는 그 기준을 높일 때이다. 장기간 당신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, 당신은 단순히 많은 국가들에서 매출이나 고객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, 모든이에게 공정한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기업(Globally Equitable Organization)을 만들 필요가 있다.
- 바람직한 예로서 스타벅스가 있다. 상품 단계에서 고객들은 모든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같은 표준화된 메뉴 항목을 주문할 수 있다. 그러나, 스타벅스는 로컬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Lucuma 열매를 작농하는 예컨데 페루 지역 고객들이 고객들이 Lucuma 크림 프라푸치노를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.
- 스타벅스는 그들의 물리적인 제품을 적용할뿐만 아니라, 고객들에게 디지털로도 접근한다. 그들은 글로벌 일관성을 오프라인에서 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유지하는데, 그들의 디지털 마케팅 노력을 들을 각 국가의 계절이나 휴일 그리고 지역 전통에 맞춰 바꾼다.
-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내가 용어를 만든 GLOBE 마인드셋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. 당신이 새로운 글로벌 사업을 착수할 때, 나는 이 다섯가지 질문을 통해 당신의 접근법이 공정한지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.
- Geography-agnostic(특정 지역을 초월하는 프로젝트): 프로젝트가 하나의 시장 고객 만족을 위해 고안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다양한 시장을 위한 것인가
- Linguistically Inclusive(언어적인 수용성):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언어와 표현을 고려했는가?
- Operationalized(사업 운영성): 사업 계획을 시행할 때 로컬 직원팀과의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 계획과 관련해 지역적인 차이점을 설명했는가?
- Balanced(재원과 시장 접근의 균형성): 회사의 자원들 특히 자금과 직원을 회사의 중요한 시장을 지원하도록 연결되고 맞추어져 있는가?
- Empathetic(공감성): 진정으로 로컬 시장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 시장의 고객들이나 리더들과 대화를 했는가?

HBR 원문

**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**

## 미국 무역적자 팬데믹 이후 확대..."당분간 지속"

### 7월 무역적자 87조원...2019년 월평균 적자 62조원 대비 여전히 커

코로나19 팬데믹(대유행) 이후 확대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6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소폭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상황이며,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

미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7월 무역적자가 650억 달러(약 87조원)라고 발표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